

“5월 광주·장애인에 희망 줄 수 있어 보람”

로체 등정 성공 김흥빈 대장

“5·18 37주년을 기념하고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등정일을 18일로 잡고 전국민과 함께 하는 의미 있는 등반을 하고 싶었다”며 “약천후 속에서도 재도전 끝에 정상에 올라 감격스럽다.”

지난 19일 세계 제4위의 고봉 로체(Lhotse·8516m) 등정에 성공한 ‘희망나눔 2017 한국 로체 원정대’ 김흥빈 대장은 광주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김 대장은 정상 등정 후 당일 제2캠프(6400m)까지 하산해 1박하고 20일 베이캠프(5400m)까지 무사히 하산했다.

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도전 중인 김 대장은 이번 등정으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8848m)를 포함해 10개 봉 정상에 올라 ‘14좌 완등’ 매직 넘버를 ‘4’로 줄였다.

김 대장은 “등정 순간 정상에는 눈보라와 강풍이 심하게 불어 서 있기가 어렵고 사진조차 촬영하기 힘들었다”며 “이번 원정은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희망나눔 등반이고 내달 대지진으로 19명의 산악인이 희생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어서 부담이 컸다”고 회고했다.

올해 로체와 에베레스트에는 세계 각국에서 1953년 이래 가장 많은 370여명의 등반가들이 몰렸다.

하지만 로체의 경우 예년에 비해 눈이 적게 내려 곳곳에 새파란 얼음(Blue Ice) 지대가 노출된다. 2015년 내달 대지진의 잔해가 아직까지 남아 있어 등반이 쉽지



히말라야 로체(8516m) 등정에 성공한 김흥빈 대장이 지난달 9일 오른 임자체(6189m) 정상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희망나눔 2017 한국 로체 원정대 제공>

1997~2009	세계7대륙 최고봉 완등
2006	가셔브롬 I(8035m)
2006	시사파마(8027m)
2007	에베레스트(8848m)
2008	마칼루(8463m)
2009	다울라기리(8167m)
2011	조오유(8201m)
2012	K2(8611m)
2013	칸첸중가(8586m)
2014	마나슬루(8163m)
2017	로체(8516m)

8000m급 14좌 중 10개 올라... 완등까지 4개 남아

다음달 10일께 히말라야 낭가파르밧 도전 위해 출국

않았다. 이로 인해 사흘 전애야 올 첫 등정자가 나왔고 이는 3년 만의 결실이였다.

19일에도 에베레스트·로체 등정에 도전한 대원은 모두 36명에 이르지만 김 대장을 포함해 5명만 정상에 오르고 나머지는 강풍 때문에 중도 하산해야 했다.

김 대장은 “무엇보다 날씨 예측이 어려워 많은 원정대들이 힘들어 하고 있고 등반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팀도 늘고 있다”며 “근래에 가장 많은 등반가들이 몰렸지만 등정률은 가장 저조한 해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LG U+, 중흥건설이 후원한 이번 원정대

는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강행운 변호사가 고문을, 정원주 중흥건설 대표가 단장을 맡고, 3명의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해 한계 극복과 희망 나눔의 의지를 다졌다.

김 대장은 오는 26일께 귀국해 다음달 10일께 파키스탄 카라코람 히말라야의 낭가파르밧(6125m) 등정에 도전하기 위해 다시 출국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 구미시산악연맹이 주최한 ‘에스구미(Yes Gum!) 7대륙 최고봉 원정대’ 장현우 등반대장은 21일 오전 8시40분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암벽등반 여제’ 555m 롯데타워 맨손 올라

김자인 여성 최초 가장 높은 건물 맨손 등반

“도전하고 성공하는 모습 국민에 힘 됐으면”

김자인(28·여) 클라이밍(암벽등반) 선수가 123층, 555m 높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오르는 데 성공했다. 김 선수는 세계 여성 가운데 가장 높은 건물을 맨손으로 등반한 주인공이 됐다.

김 선수는 등반에 성공한 뒤 “높아질수록 잡는 부분이 좁아져서 좀 힘들었다”며 “하지만 즐기는 마음으로 한층, 한층 재미있게 등반하려고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도전하고 성공하는 제 모습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클라이밍’이 2020년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메달 욕심보다, 2020년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개인적 꿈”이라며 “롯데월드타워도 도전과 희망의 상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김자인 챌린지 555’ 행사는 김 선수의 말처럼, 국민에게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롯데가 마련한 이벤트다.

바현철 롯데물산 대표는 “김자인 선수의 롯데월드타워 완등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늘 김 선수의 도전이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며 “앞으로도 롯데월드타워는 꿈을 향해 도전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자인 선수는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클라이밍 월



드컵 25회 우승, 한국 최초 세계선수권 대회 오버를 부문 우승(2012), 리드 부문 우승(2014), 아시아선수권 대회를 11연패 등의 타이틀을 보유한 국내 간판 암벽등반 선수다. 2013년에도 부산 KNN타워(128m)와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84m) 등반에 성공했다.

김자인 선수는 지난 2013년 목포 부주산 국제 클라이밍센터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월드컵 여자 리드에서 미나 마르코비치(슬로베니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세계적으로는 1977년 미국의 조지 웰리가 뉴욕 110층(412m)의 월드트레이드센터에 맨손으로 올랐고, 프랑스 알랭 로베르 는 2011년 세계 최고 높이 828m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꼭대기까지 등반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5기 홍콩·마카오 해외연수



제5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해외연수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3박4일간 홍콩·마카오에서 진행됐다. 연수에는 김성윤 원외회장(경도건설 회장) 등 원우 45명이 참가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5기 원우회 제공>

광주축산농협 ‘소통·공감·공유 가족대회’

광주축산농협(조합장 안명수)은 지난 20일 광주시 서구 상무리 초컨벤션홀에서 ‘소통·공감·공유 우리직원 컨퍼런스 한마음가족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광주축산농협 임·직원 및 가족 500여명 참석해 종합적평가 전남 최우수상(전국2위), 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을 수상하여 자축의 의미로 가족들과 화합을 다졌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사무소 표창, 말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직원들에 대한 표창하고 난타공연, 마술쇼 등 다채로운 행사도 이어졌다.

안명수조합장은 “광주축산농협 임직원들은 미래의 희망으로 자부심을 갖고 온 열정과 의욕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



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단돈 1원이라도 내 조합에 예금, 대출, 보험, 마티이용을 적극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KT&G 전남본부, 조선대서 사랑나눔축제



KT&G 전남본부(본부장 이승우)는 지난 20일 조선대 장미원에서 대학생 봉사단 ‘상상발룬티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나눔 축제 ‘상상로즈가든’을 진행했다. <KT&G 전남본부 제공>

공도협 광주시회, 4개정 공도대회



광주시 공도협 광주시회(회장 선거일)는 21일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송무정에서 제5회 광주구정장배 및 4개정 공도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공도협회 제공>

장애인 생활축구 어울림대회 성료

광주시 장애인축구협회(회장 이경호)는 지난 20일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FC광주엔젤 전국장애인축구대회 전관왕 달성기원 장애인생활축구 어울림대회’를 열었다.

<사진>

이번 행사에는 지적장애인 축구팀인 광주엔젤을 비롯해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광주지방경찰청 참수리팀, 광주북구청 축구동호회, 장애인복지구복지회, 문우FC, 핑클여성 축구팀, 참사랑 여성축구팀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지적장애인 축구팀 ‘광주엔젤’을 후원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개



최고고 있는 이번 행사에서는 친선 축구경기와 각종 레크리에이션 게임이 진행됐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김광호·박복자씨 장남 태훈(현대상호증권 대리)군, 최복규(주)한페이지스 감사·재광해남군향우회장·전 광주는행 본부장)·정정안씨 차녀 가연(LG화학기술연구소 대리)양=27일(토) 오전 11시 50분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워딩컨벤션 2층 열무채움.

▲조용대(서광주세무서 근무)·곽혜숙씨 장남 우진군 이희만·원미자씨 장녀 은솔양=28일(일) 낮 12시30분 서울 강남 더채플렛정당 3층 커디지홀.

등문회

▲조대부고 총동창회 22차 정기총회=23(화) 오후 6시 30분 광주시 서구 지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4층 대연회장 062-224-1461.

▲2017 인성과 총동문회(회장 노익권)가족한마당 ‘동행’=28일(일) 오전 9시 모교 잔디구장.

향우회

▲재광영암군향우회(회장 조성희) 제67회 정기총회=25일(목) 오후 6시 30분 광주시 남구 백운동 프라도호텔 3층 에메랄드홀 062-654-6600. 문의 박미서 사무총장 010-3640-3308, 위성은 총무국장 010-3604-9292.

종친회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월례회 : 여성이화회=22일(월) 오전 11시 지원 회의실 062-225-5636.

▲광산이씨 필문회(회장 이태교) 월례회=22일(월) 오후 6시 30분 광주시 동구 금남로5가 롯데백화점 건너편 종친회 사무실.

알림

▲월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

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회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광주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365일24시간 상담가능.

모집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중장년세대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 참가자=스마트워크&오피스(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중년들의 몸퍼기운동(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생애설계 이해와 방향(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광주 광산구 소촌동 232-2. 광주시공무원교육원 4층 강당, 문의 062-600-5242.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

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청년부 회원=“송조돈종”과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 종묘·사직대제, 조선왕조 500년 문화·역사를 함께할 전주이씨 또는 완산이씨. 문의 광주·전남청년이화회장 이철환 010-3601-1422.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회원=미술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봅니다 弔	
401호 故오순섭 남(여/79세) 子/子婦 : 함승현/이희만, 주연/김혜숙 女/婿 : 한혜원/김기승 夫/妻 : 한명석 • 발 인 : 5월 22일 • 장 지 : 영락공원	402호 故이효정 남(여/26세) 父/母 : 이정식/이장남 兄弟 : 이민규 • 발 인 : 5월 22일 • 장 지 : 영락공원
101호 故남주희 남(남/39세) 兄弟 : 남주석 未成人 : 전주선 • 발 인 : 5월 22일 • 장 지 : 영락공원	102호 故김후성 남(남/65세) 子/子婦 : 김형승/이현숙, 민승 未成人 : 윤민희 • 발 인 : 5월 23일 • 장 지 : 영락공원
함께한10년.함께할100년 금호장례식장 062-227-4000 대표이사 구재길 www.mykumho.com	